

KRIVET Issue Brief

2013

발행인 박영범 | 발행일 2013년 9월 15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5호

대학생의 글로벌역량 진단 결과 분석

- 글로벌역량은 수도권 학생들이 53.4점으로 비수도권 학생들(45.1점)보다 현저하게 높음.
- 계열별로는 이공계열 학생이 46.7점으로 인문사회계열 학생(47.4점)보다 낮게 나타남.
- 학년별로는 4학년(52.9점), 3학년(51.0점), 2학년(47.5점), 1학년(45.1점) 순으로 나타나, 고학년일수록 글로벌역량 수준이 높음.
- 글로벌 환경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 글로벌역량의 격차가 나타남. 즉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가 높은 상위 25%의 글로벌역량 수준은 50.3점인 반면, 하위 25%는 44.0점으로 큰 차이를 보임.
- 대학생들의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고 관련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01 글로벌역량의 중요성

| 글로벌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수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도 해외 기업들이 다수 진입해 있는 현 시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력의 글로벌화는 핵심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글로벌 인재는 전 세계 기업들이 주시하고 있는 글로벌화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대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에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고등교육 수준에서의 커리큘럼 확충이 요구됨.
- 고등교육을 통하여 대학생들이 성취한 직업기초능력으로서의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국제적 감각과 자세 및 이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필요함.

02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 분석 자료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하고 시행해 온 K-CESA 결과 DB
 - 한국대학생핵심역량진단체제(K-CESA: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는 대학생의 핵심역량 요소를 진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운영
 - K-CESA는 의사소통역량, 자원·정보·기술 활용역량, 종합적 사고력, 글로벌역량, 대인관계역량, 자기관리역량 등 여섯 가지 역량으로 구성
- 분석 대상: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글로벌역량 영역에 응시한 14개교 3,571명
 - 성별로는 남자 1,876명, 여자 1,695명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860명, 비수도권 2,711명, 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2,097명, 이공계열 1,474명, 학년별로는 1학년 2,000명, 2학년 813명, 3학년 356명, 4학년 402명이 응시함.



KRIVET 모바일용

글로벌역량의 진단

-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서의 글로벌역량에 대한 성취 수준을 진단
 - 평가영역은 유연성 및 적극성, 타문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
 - 글로벌역량의 총점과 하위 영역별 점수는 T점수¹⁾를 사용
 - 외국어 능력과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는 글로벌역량 점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 참고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설문 문항으로 포함

| 각주 |
 1) T점수는 표준점수의 일종으로 평균 50, 표준편차 10을 기준으로 원점수를 변환한 점수임.

〈표 1〉 글로벌역량 검사의 하위영역 구성

구분	영역	구성 요인	설명	
인지/비인지적 역량 혼합	글로벌 역량	외국어 능력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	
		다문화 수용 및 이해능력	태도: 유연성 및 적극성	인종이나 종교 등 다른 문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나 생활환경 혹은 과제에 도전해 보고자 하는 성향
			타문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일반적 글로벌 매너에 대한 지식 및 이해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정치, 역사, 지리, 문화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글로벌화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	세계화(Globalization) 및 글로벌 정치·경제에 대한 지식 및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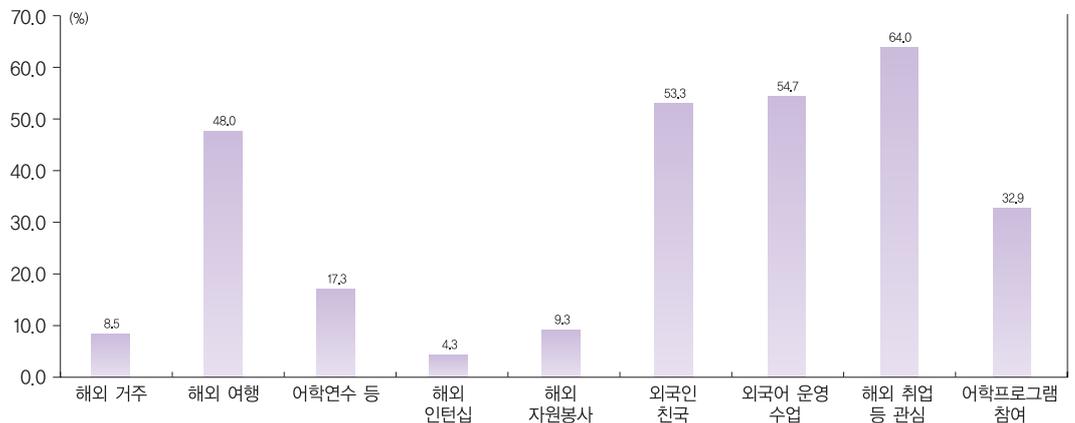
- 글로벌 환경 노출 경험은 총 9개 문항으로 응시자의 해외 경험 및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
 - 각 문항별로 '예' 1점, '아니오' 0점을 부과하며, 총점은 0과 9 사이의 값을 갖게 됨.

03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 격차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는 고학년, 수도권 지역, 인문사회계열이 상대적으로 높음.

- 9개의 글로벌 환경 노출 유형별 경험을 분석한 결과, '졸업 후 해외 취업 혹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지사 취업에 관심 있음'이 64.0%로 가장 높았음.
 - 외국인 친구를 사귀 경험이나 외국어로 운영되는 수업 수강 경험, 해외 여행 경험도 5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남.
 - 외국어 어학프로그램은 30% 이상의 학생이 참여 경험이 있는 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외 인턴십 등을 경험한 비율은 10% 이내로 낮음.

| 주 |
 문항: ① 1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이 있다, ②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 ③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유학 경험이 있다, ④ 해외 인턴십 경험이 있다, ⑤ 해외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 ⑥ 외국인 친구를 사귀 적이 있다, ⑦ 외국어로 운영되는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 ⑧ 졸업 후 해외 취업 혹은 다국적 기업의 국내지사 취업에 관심이 있다, ⑨ 정규수업 외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어학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TOEFL, TOEIC, TEPS포함).



〈그림 1〉 글로벌 환경 노출 유형별 경험 비중

- 학년이 높을수록,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인문사회계열이 이공계보다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학생이 33.9%로 남학생(31.2%)에 비해 높음.

- 인문사회계열 학생은 33.8%로 이공계 학생(30.6%)에 비해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가 높음.
- 수도권 소재 대학생(42.6%)이 비수도권 소재 대학생(29.3%)보다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남.
- 학년별로는 1학년 26.9%, 4학년 46.4%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가 높음.

〈표 2〉 글로벌 환경 노출 차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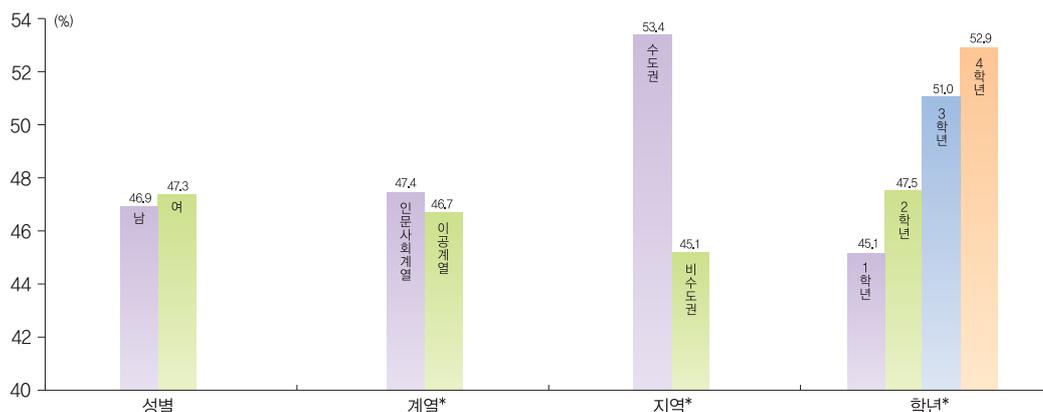
항목	성별		계열		지역		학년			
	남자	여자	인문사회	이공계	수도권	비수도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해외 거주	8.2	8.8	9.6	6.9	13.7	6.8	6.4	10.0	11.5	12.7
해외 여행	47.4	48.7	51.2	43.4	70.8	40.8	42.7	45.9	60.7	67.4
어학연수 등	16.0	18.8	19.7	13.8	35.8	11.4	10.6	21.0	25.6	35.8
해외인턴십	3.9	4.8	4.5	4.1	6.2	3.8	2.5	7.4	4.2	7.7
해외자원봉사	9.3	9.3	10.0	8.3	14.3	7.7	6.3	11.7	17.1	12.7
외국인 친구	49.6	57.3	56.7	48.4	69.0	48.3	47.5	52.4	64.6	73.9
외국어 운영 수업	53.2	56.4	56.5	52.2	61.7	52.5	42.1	68.1	64.3	82.1
해외취업 등 관심	61.3	67.0	65.1	62.4	74.7	60.6	61.6	64.1	68.0	72.1
어학프로그램 참여	32.2	33.7	30.9	35.8	37.4	31.5	22.2	42.7	48.6	52.7
합계	31.2	33.9	33.8	30.6	42.6	29.3	26.9	35.9	40.5	46.4

주 | 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04 글로벌역량 격차

글로벌역량은 수도권, 고학년, 인문사회계열이 높음.

- 글로벌역량 수준은 수도권 학생들이 53.4점으로 비수도권 학생들(45.1점)보다 현저하게 높음.
 -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47.4점으로 이공계 학생들(46.7점)에 비해 글로벌역량수준이 높게 나타남.
 - 학년별로는 4학년(52.9점), 3학년(51.0점), 2학년(47.5점), 1학년(45.1점) 순으로 나타나, 고학년일수록 글로벌역량 수준이 높음.



주 | 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그림 2〉 글로벌역량 차이

- 글로벌역량의 하위 구성 요인 역시 수도권 학생들이 비수도권 학생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이공계열 학생들보다, 학년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보임.
- 다양한 문화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유연성의 경우, 여학생(50.5점)이 남학생(49.2점)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3〉 글로벌역량의 하위 구성 요인 차이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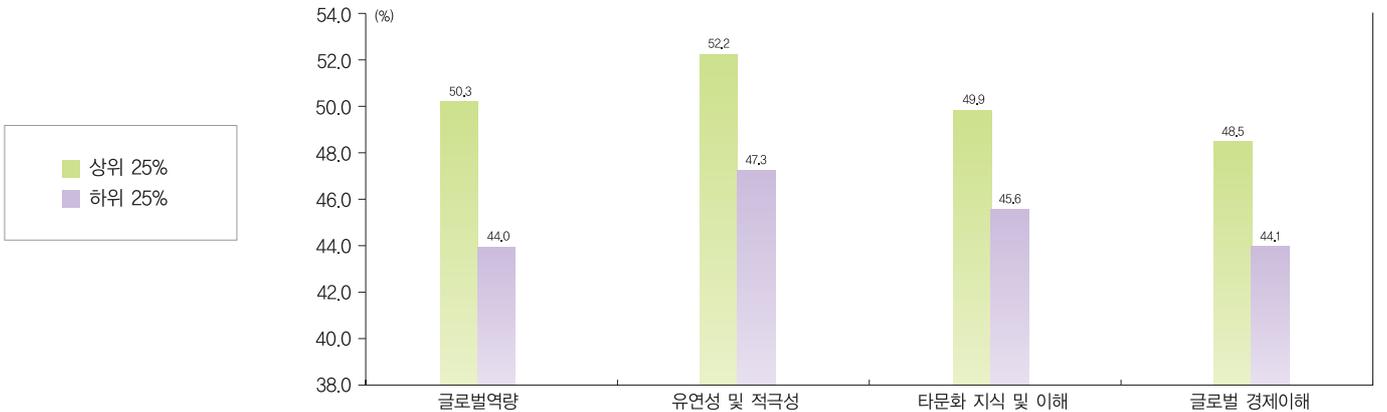
영역	성별		계열		지역		학년			
	남자	여자	인문사회	이공계	수도권	비수도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유연성	49.2	50.5	49.9	49.7	52.4	49.0	48.9	50.8	50.9	51.6
타문화이해 및 수용능력	47.7	47.6	47.9	47.2	53.0	46.0	45.9	48.0	50.6	52.9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	46.3	46.0	46.5	45.7	52.0	44.3	44.0	46.5	50.6	52.1
글로벌역량총점	46.9	47.3	47.4	46.7	53.4	45.1	45.1	47.5	51.0	52.9

주 | 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가 클수록 글로벌역량이 높음.

각주 |
2) 성별, 지역, 계열, 학년을 통제하여 도출한 추정값을 비교함.

-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각 영역별 평균점수와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평균점수를 비교하였음.²⁾
-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 상위 25% 학생들의 글로벌역량 총점은 50.3점으로 하위 25% 학생들(44.0점)에 비해 높은 역량 수준을 보임.
 - 유연성 및 적극성, 타문화 지식 및 이해 역량,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 역량 등 모든 하위영역에서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가 높은 학생의 역량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3]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에 따른 글로벌역량 수준 차이

05 시사점

- 대학생들의 글로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고 관련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1년 이상의 연수, 인턴십, 자원 봉사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체험 위주의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고려해야 함.
 - 고학년일수록 글로벌 환경 노출 정도 및 글로벌역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각 대학별 교육과정의 효과인지, 개인별 역량 강화의 효과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공계 학생들의 글로벌역량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공계 학생들의 인력양성프로그램에서 글로벌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학생들과 비수도권 학생들의 글로벌역량의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결과는 비수도권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함.
 - 수도권 대학 역시 학생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에 따라 성별 격차가 확인됨. 이는 글로벌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
 - 비인지적 역량인 유연성 및 적극성 영역과 인지적 역량인 타문화 이해 및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이해 영역 등 하위 요소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진 미 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